



굿모닝인천

NOVEMBER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35

11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2021.11 NOVEMBER

정수동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2호"
"천수백년은행나무"
보통 구목 둘레 10m 이상
목질부 건조후 무게 100kg 이상
목 둘레 100cm 이상

浦村 사람들



조수일(趙守逸 ; 1910-1986)

부서만큼씩이나 큰 첫물 조기가 펄떡거릴 때마다 뱃사람들은 모든 시름을 잊는 것이
요, 또한 그들에게 남모르는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며 무엇으
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십여 마리씩 앞질러 들었던 조기 밑에는 역시 많은 조기들이 몰려 있는 것이었다. 그물
이 뱃전에 올랐을 때 약 한 동이나 되는 황금의 어족들이 꺾꺾거리며 올었다.



글 김영승

흑산도에서부터 연평도를 오르는 조기 떼를, 팔미도를 끼고 영흥 앞바다를 돌아 덕적군도에서 이작도를 따라 그 조기 떼를 쫓는 이 단편소설 ‘포춘 사람들’(1959)은, “300호 대촌으로 꿈히는” 갯마을에서의 친구 관계인 산이와 돌이, 그리고 점분과의 삼각관계로 보면, 가령 멀리는, 역시 바닷가 마을에서 함께 자란 세 친구, 가장 귀여운 소녀인 애니 리와, 제분업자의 외아들 필립 레이, 그리고 주인공, 그렇게 세 남녀의 전설을 쓴 알프레드 테니스(1809-1892)의 이야기시 ‘이녹 아든’(1864)을, 그리고 가까이는 함세덕(1915-1950)의 희곡 ‘무의도기행’(1941)을 연상시키며, 그러한 구도인데, 결말은 비극이다.
어릴 적 나는 분명 황소 떼의 울음소리 같은 조기 떼의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포춘, 포리, 포동 이름도 자주 바뀐 그 포춘의 소금창고를 보면 김소월(1902-1934)이 죽기 4개월 전에 쓴 ‘제이·엠·에쓰’가 생각난다.

얇은 얼굴에 자그만 키와 여원 몸매는
달인 소금 같은 지조가 튀어날 듯
타듯 하는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셨다.

—김영승 현대어 역(譯)

한 때 이맘때면 그 소래 근처 포춘에서는 갈대 축제(?)가 열렸었는데, 가도 가도 갈대뿐인 그 폐염전의 그 갈대숲, 그 갈대를 태워 삼겹살을 구워먹는 게 비공식적인 축제였다. “어느새 돛대 끝에는 수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바다 위는 바다 위대로 역시 많은 별들이 물에 떠 흐르고 있었다.”(본문 중에서)

11

NOVEMBER
2021
Vol. 335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지원이북바로가기 | 11월의 시민 목소리 문경숙, 염수진, 남영희 독자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인천 미소 깨끗한 물, 깨끗한 인천 外	04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영종도 하늘정원	05
가상 인터뷰 장수동 은행나무, 850년의 대화	06
시민 시장 정승열 시인	10
스케치에 비친 인천 덕적도	12
가을 특집 위드 코로나 시대 가볼 만한 곳	18
환경특별시 인천 밥상 위 환경운동	24
자원순환 도시 인천 친환경 바람	28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⑱ 신명여자고등학교	32
시정 특집 미리 건너본 ‘제3연륙교’	36
정책 만화 인천e한눈에	38
문화 캘린더 제2회 전국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 外	40
이미지 뉴스 인천시 일상 회복 추진	42
시정 뉴스 ‘인천시 시민청원’ 外	43
의회 뉴스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外	48
컬러링 인천 인천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	50
인포 박스 Green 아이디어로 지구를 푸르게 外	52
문화 줄인 새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한다’	54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⑪ 인천도호부관아	55
소소한 인천사 서구의 옛 이름 ‘서곶’ 外	56
仁生 사진관 낭만에 대하여	57
인천의 아침 ‘배호 50주기’와 인천 대중음악사	58
포토 에세이 장수동 은행나무 할아버지	59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영종도 하늘정원



가을을 날다

글 최남규(서구 신현동)

완전한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공기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을 실감하게 합니다. 인천에는 가을 나들이 명소들이 많습니다. 푸근한 정과 넉넉한 인심으로 북적이는 소래포구와 인근 소래습지생태공원,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은 꽃나무를 벗 삼아 산책하기 좋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천대공원도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종도 하늘정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항을 품은 영종도만의 매력이 넘실대는 이곳은 매년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진분홍 핑크물리와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펼쳐진 풍경이 장관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갈대밭도 운치를 더합니다. 너른 대지 위에 아기자기하게 나 있는 오솔길을 걷다 보면 세상 속 갇은 시름이 날아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늘정원은 머리 위로 날아드는 비행기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 한 컷 남기기에도 좋은 핫스폿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말 오후면, 사진 찍기 좋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은근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구 그리고 계양구에 서는 차로 20~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 하늘정원은 인근 시민들에게 부담 없는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인근에 자리한 인천공항전망대에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공항 갈 일 적어진 요즘, 높은 하늘로 비상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깨끗한 물, 깨끗한 인천

인천의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한때 수돗물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인천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반전의 결과를 이뤄낸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인천 물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우도형 미추홀구 경인남길

탄소 제로 도시를 향해

최근 전 세계적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환경’입니다. 우리 인천 역시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뿌듯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진 요즘, 우리 시민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러 나가면 합니다. 탄소 제로 도시 인천을 위해.

— 최영지 계양구 부근길

사람으로 도시를 보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를 통해 만난 최영섭 선생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간 700여 곡을 작곡했고, 미발표 곡만 해도 2,300곡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영섭 선생의 악보와 물건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네요. 앞으로도 인천 사람들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주세요.

— 김리아 남동구 구월로

인천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시골에서 올라와 인천에서 애 넣고 살림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인천을 알아가는 길잡이와 같은 <굿모닝인천>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임명숙 부평구 부평북로





고려 때부터 장수동에 뿌리내리고,
인천 사람들의 삶과 우리나라 역사 지켜와

“돌아보니 나도 참 많은 사건을 겪었구나. 태어나던 시기 고려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이 쳐들어왔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조선 후기까지 조용한 시기도 있긴 했어.” 가을 아침, 장은나무 가지에 달린 나뭇잎들이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아직은 녹색기가 가시지 않은 은행잎 몇 개가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장은나무는 고려 명종 임금이 즉위하던 1170년쯤 태어났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19대 왕으로 옹립한 시기였다. “나라가 불안해 보이니까 장수동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심은 거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같은 나무를 신처럼 모시며 나라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거든.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천과 고려 왕실은 깊은 인연이 있었단다.”

깊은 인연이라... 그다음 말이 궁금해 장은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를 뒤덮은 무성한 잎들이 가을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어떤 인연인지 궁금하지? 꺾꺾. 인천에선 당시 많은 규수를 고려 왕실로 시집보냈다. 고려의 제11대 국왕인 문종부터 제17대 인종에 이르기까지 7대 80년 동안 인주(인천) 이 씨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거지. 이 기간 인주 이 씨 집안은 고려 최고의 명문가로 자리 잡았고 인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지.”

장은나무는 “무신들이 고려 왕실을 ‘접수’하면서 인천 사람들은 인천이 왕비들의 고향이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장수동에 살던 사람들이 인천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나를 심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850년간 한자리에서 지켜본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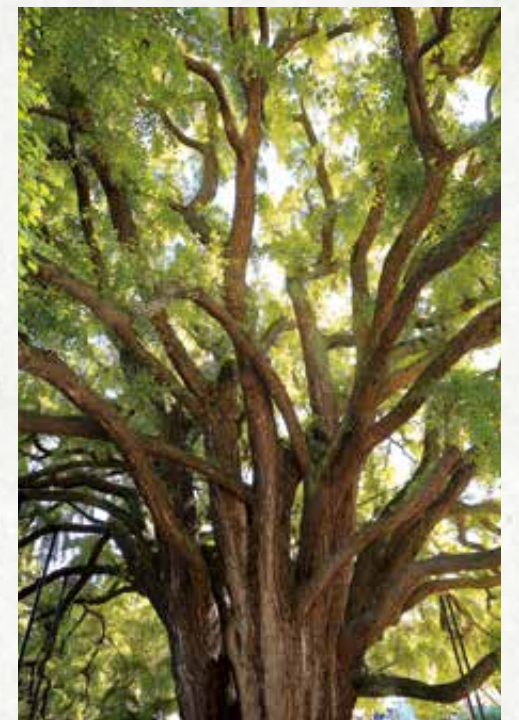
“850년간 내가 지켜본 인천은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온몸으로 외침을 막아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내보내며 한반도의 인후 역할을 해왔지. 암, 그렇고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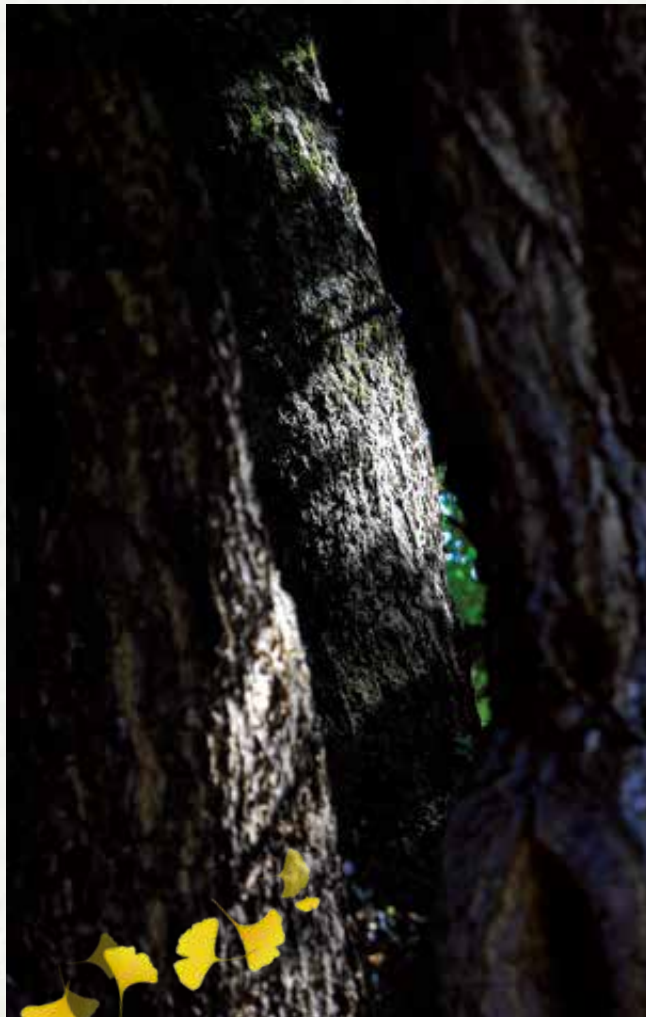
올해 850살을 먹은 장수동 은행나무는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목구멍이라 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책임을 잘 수행한 도시”라며 “인구 300만에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은 이제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전국의 800살 이상 된 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로 손꼽힌다. 원형을 잘 간직한 데다, 무성한 가지와 잎이 버들가지처럼 늘어져 있다. 높이 28.2m, 근원둘레(지표 경계부 둘레) 9.1m, 수관(가치나 잎이 무성한 부분)의 폭 동서 27.1m, 남북 31.2m의 외양. 장수동 은행나무가 지난 2월에서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된 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자리에 뿌리박혀 인천 땅에서 살아온 장수동 은행나무가 바라보는 고향 인천은 어떤 도시일까. 가을에 만난 장수동 은행나무(이하 장은나무)는 서서히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850년간 지켜본 인천은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온몸으로 외침을 막아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내보내며 한반도의 인후 역할을 해왔지. 암, 그렇고말고.”

올해 850살을 먹은 장수동 은행나무.
높이 28.2m, 근원둘레(지표 경계부 둘레) 9.1m,
수관(가치나 잎이 무성한 부분)의 폭 동서 27.1m, 남북 31.2m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려 애썼고, 나도 신령의 기운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인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더구나.”

몽골 침략, 일제강점기, 6·25전쟁,
산업화·민주화 중심 역할,
인천 사람들 정성으로 지금도 건강

태풍이나 전란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변고가 있었을 텐데 지금껏 가지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 “그거야 인천 사람들이 나를 정성껏 보살폈기 때문이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같은 나무를 상당히 귀한 존재로 인식했다. 지금도 나에게 당제를 올리지 않더냐.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거지.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자원순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운동의 핵심은 자연 존중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지.”

장은나무는 850년 동안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데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인천은 삼국 시대부터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었고, 조선 시대 들어서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

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겪은 첫 번째 위기는 몽골이 쳐들어와 전 국토를 유린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였으며, 세 번째는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온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마지막 위기는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였지.” 장은나무의 표정이 잠깐 동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려 애썼고, 나도 신령의 기운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인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더구나.”

장은나무는 “몽골 제국이 고려를 침공한 1232년 고려 고종 임금의 항복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 강화도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겼지. 고려 왕조는 이후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도에 머물며 몽골에 저항하는 한편, 눈부신 문화를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인천이 고대의 수도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기원전 비류백제가 그것”이라며 “비류는 해양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문학산에 성을 쌓고 왕국을 건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은 비류백제와 고려, 두 나라의 고도古都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仁川’이란 지명은 언제 생겼을까.

“내가 240여 살 때까지 인천의 지명은 인주仁州였다. 그러나 조선 태종 때인 1413년 인주는 인천이 되었고 세조 5년(1459)엔 인천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이는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의 어머니가 인천 이 씨였기 때문이지. 인천은 이후 조선 후기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700살 됐을 때 ‘인천’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이후 국난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꽃피워내

인천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장은나무가 700살 정도가 됐을 때다. “19세기였지. 서해안 방어의 최전선으로 강화도와 인천 지역의 방어 체계가 중요시되던 시기,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야.”

장은나무는 그 과정에서 “조불전쟁(병인양요, 1866)과 조미전쟁(신미양요, 1871)이 발발했으나 함포 몇 발을 맞고 두 손 두 발 다 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선은 항복하지 않았고 개항을 요구하는 프랑스, 미국에 맞서 싸워 쫓아냈다”며 “엄청난 희생이 따르긴 했으나 두 전쟁 모두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단언했다.

장은나무는 “1883년 개항과 함께 인천은 중국과 일본, 서양인들이 북적대는 국제도시가 되었고 신문물의 입이 된 인천에서 ‘대한민국 최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개항 이후 인천은 급속한 도시화의 길을 걸었고 광복과 6·25전쟁 등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현재 인구 300만의 미래 국제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21세기에도 인천은 격동의 역사를 창조하며 지금까지 정진한 것이라고.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전쟁을 겪으며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도 인천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해 온 도시다. 공단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이끌었고 노동민주화운동도 활발했지.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율화를 이끌어낸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인 5·3항쟁도 주안시민회관 앞에서 시작된 게 아니더냐. 그때 주안에서 터진 최루탄 냄새가 장수동까지 날아올 정도로 격렬했단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코가 맵구나.” 장은나무가 표정을 찌푸렸다.

장은나무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을 물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나를 영험한 나무로 여겨 집안에 액운이 있거나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면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려왔다. 요즘 사람들은 사시사철 나를 찾아와 사진을 찍고 내 가지 아래에서 쉬었다 가곤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많이 아껴줘서 지금까지 잘 사는 것 같다. 특히 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올해 결실을 얻은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나에게 정성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나 또한 최선을 다해 보살피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한자리에 850년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이 땅을 잘 지키며 살고 싶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구나.”

어느 틈엔가, 장수동 은행나무 가지의 잎들이 노랗게 팔랑거리고 있었다.

“내가 한자리에 850년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도 이 땅을 잘 지키며 살고 싶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



정승열 시인은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시인이 장수동 은행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시인 정승열

“

전국의 800년 이상 된 나무 가운데 주요 가지의 손상이 거의 없고 타원형의 수형을 이룬 나무는 장수동 은행나무가 유일합니다.

”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한 포토저널리스트

‘장수동 은행나무’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다. 800살 넘는 전국 24그루의 은행나무 가운데 으뜸으로 인정을 받는다. 대다수의 은행나무들은 둘레만 굵을 뿐 가지가 위로 뻗치고 군데군데가 비어 있기 일췌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그러나 가지가 하나같이 튼실해 잎이 무성한 데다 가지가 옆으로 누워 멀리서 보면 공작이 탐스러운 꼬리를 펼친 것처럼 보인다. 장수동 은행나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정승열(74) 시인이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인천 사람인 그로선 당연한 일이었다.

“전국의 800년 이상 된 나무 가운데 주요 가지의 손상이 거의 없고 타원형의 수형을 이룬 나무는 장수동 은행나무가 유일합니다.” 그는 “국가 기념물 설명에 ‘아름답다’는 문구가 들어간 하나뿐인 나무”라며 “너비도 가장 넓어 한여름이나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수십 명이 그늘에서 쉬거나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동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기 위해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나무를 일일이 조사했다. 이를 장수동 은행나무와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2018년 인천시에 전달했고 나무 소유주인 남동구는 행정 절차를 추진, 3년 만인 지난 2월 마침내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인정받았다. 이번 결실은 민·관이 함께 성심성의껏 노력한 성과인 셈이다.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인천에 이 문화라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함께한 겁니다.” 이문화以文會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군자이 문화우 이우보인’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키운다)이란 문구에서 따온 말이다. 인천의 역사나 현안, 미래에 대한 토론과 탐구를 하기 위해 인천의 뜻있는 사람들이 2009년 만든 모임이다. 지금은 정간한 상태이지만 <리

뷰 인천>이란 잡지를 4년 정도 만들기도 했다. 황해도 곡산 출신인 정 시인은 네 살이던 1·4후퇴 때 부모를 따라 인천에 정착한다. 처음 주안염전 근처로 왔으나, 부친이 철도국에 취직하며 주안역 앞 모자형 2층 건물인 철도국 사택으로 이사한다. 재봉 기술을 가졌던 어머니가 중앙시장에서 맛별이를 하며 그의 부모는 정 시인의 동생 네 명을 포함해 일곱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주안초, 상인천중, 인천고를 나온 그는 인천교대를 졸업하자마자 교사 생활을 시작해 삼산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친다. 1973년 ‘내향문학회’를 만들고, 1979년엔 <시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래 인천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얼마 전 <짚물론>이란 책을 펴낸 정 시인은 “인천 사람을 짚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근면하며 절약과 배려까지 담긴 선진 정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유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개항, 8·15광복, 6·25전쟁 등 굵직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전국 8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개항 초 제물포 인구는 9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300만 명이 모여 잘 살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지역에 짚물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의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강물을 물리치지 않는다)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인생에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강한’ 그는 요즘이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했다. “정년 뒤 줄곧 제가 좋아하는 글 쓰고,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며 살아왔어요. 제가 부럽지 않으세요?” 장수동 은행나무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포용력 있고 정감 어린’ 짚물 정서가 촉촉하게 반짝였다.



‘큰물’
큰물

가을보다 짙고,
바다보다 깊은

덕적도 갈대숲

210 x 297(mm) 커피 그림 2021

섬 북쪽 능동자갈마당 가까이에 있는,
서해 최대의 갈대 군락지.
가을이면, 은빛 물결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
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
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
어간다. 이번 호는 ‘큰물’ 덕적도의 가을을 유사랑 시사만평가가 그렸다. 깊고 진한 에스
프레소 커피 그림으로.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취재 영상 보기

— 시월인데 날이 차다. 느닷없이 부는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하지만 섬 바닷가엔 도시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포근함이 공기 사이를 맴돈다.
덕적도 바다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진리해변,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덕적초·중·고
등학교. 고른 한낮이 지나고, 오후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까르르
햇살 같은 웃음소리를 퍼트리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쏟아져 나온다. 발걸음도 거
분거분히 노란 버스에 오른다. 그렇게 구불구불 섬길 따라 다다른 섬 북쪽 끝자락.
능동자갈마당에 조금 못 이른 북2리 마을. 눈앞에 거대한 은빛 물결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서해에서 가장 큰 갈대 군락지다.
“갈대는 덕적도 정신이에요. 혼자선 흔들리지만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지요. 우리
섬사람들은 예로부터 갈대처럼 잘 뭉쳤어요. 여러분은 덕적도의 미래예요. 그 뜻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권순학(58) 덕적중학교 교사는 덕적도의 힘을 ‘단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정
신을 ‘서해 낙도의 슈바이처’ 고 최분도 신부, 그와 함께한 주민들에게서 본다. 얼
마 전엔 ‘덕적군도 바로 알기’ 수업으로 학생들과 그의 발자취를 밟았다. 1966년
4월, 최 신부가 섬에 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기와 수도, ‘문명’을 맞았다.
1960년 간척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공사를 중단하기 수차례, 끝내 바다를 메워 농
지를 만들었다. 병원선 ‘바다의 별’과 ‘복자 유 베드로’ 병원이 품을 열고 아픈 이
들의 마음까지 끌어안았다. 그때마다 온 덕적도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깊고 푸른 ‘큰물’ 덕적도. 그 섬에는 바다보다 마음이 깊고, ‘바다의 별’보다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갈대 군락지에서 ‘덕적군도 바로 알기’ 수업 중인
권순학 덕적중학교 교사와 학생들



아름다운 섬,
빛나는 사람들

덕적도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
단합 정신이 깃든 덕적도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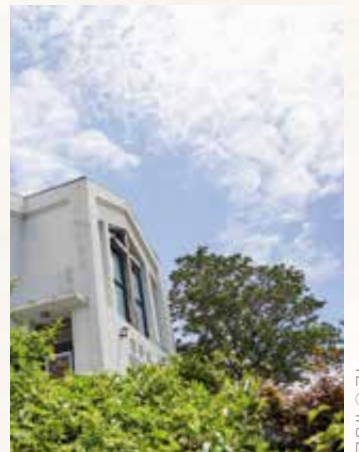


사진 © 류창현



사진 © 류창현

갈대 군락지 가까이에 있는 능동자갈마당. 차르륵차르륵~ 파도 소리가 자갈 위를 구른다.

황금벌판엔 오늘,
갈대가 춤추고

김계철 북2리 이장.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지금은 갈대숲이 되어버린 땅엔,
섬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이 배어 있다.



— “황금물결이 춤추는 섬에서 가장 큰 농경지였지.” 가을빛 일렁이는 저 아름다운 갈대숲은 섬사람들에겐 눈물겨운 생존의 장이었다. 1920~1960년대 덕적 바다에 사시사철 자연의 산물이 모여들고, 민어 파시로 북리에 돈과 사람이 넘치던 시절. 배를 부리지 못하던 사람들은 가난했다. 땅 한 뼘기 있으면 농사라도 지었지만, 먹고사는 형편은 크게 낫지 않았다. 고된 농번기 끝에 가을걷이해 내다 팔아도 가족들 주린 배 채우기도 힘들었다.

김계철(68) 북2리 이장은 대대손손 섬 북쪽 마을에 뿌리내려왔다. 그의 집안은 바다가 아닌 땅에 기대어 살았다. 칠십을 바라보는 지금도 옛 기억이 떠오른다. 봄이 오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집집마다 소를 몰고 나와 쟁기질했다. 햇살의 농도가 짙어지면 모내기하고 바람이 소슬하게 불면 생명을 갈무리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다. 세월이 흐르고 섬은 늙어갔다. 젊은 사람들이 육지로 떠나고 농사짓던 터만 덩그러니 남았다. 버려진 땅엔 갈대 씨앗이 날아들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본래 그들만의 세상이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릴 때부터 내 손으로 모심고, 벼 베던 땅이니까. 그래도 이맘때면 갈대숲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길을 내고 출렁다리라도 놓으면 동네가 좀 북적이지 않겠어.” 올 9월 기준 덕적도 인구 1,320명, <한국서해도서>에 의하면 1954년엔 1만2,788명에 이르렀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 들판엔 정적이 흐른다. 쇠~ 바람 소리와 사그락사그락 갈대 스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갈대숲의 아이들 210 x 297(mm) 커피 그림 2021
지금 발 딛고 선 땅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길 바라며,
오늘도 섬마을 선생님과 아이들은 섬을 느릿느릿 걷는다.



섬에 사는
행복

—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 삶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1987년 인천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권 교사는 ‘섬마을 선생님’의 삶을 자처했다. 그가 가르치는 수학처럼 답이 정해진 도시에서의 삶이 갑갑해질 무렵, 섬과 바다가 가슴으로 들어왔다. 처음 섬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건 10년 전 백령도에서였다. 세상에서 툭 떨어져 서해 최북단에 오롯이 핀 섬. 혼자 자전거를 타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 못 가 가로막혔다. 산 넘어 산과 철책이 둘러쳐진 바닷가,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리워서 찾아든 섬 생활이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다.

오늘 덕적도에서 살아가는 그는 행복하다. 소나무 숲이 있는 바닷가 마을에서 매일 눈뜨고, 아침 햇살 맞으며 아이들 꿈이 자라는 학교로 간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어른이 되어도 섬에서 살겠느냐’ 물으니 대부분 떠난다고 했다. 안타까웠다. 조금 더 섬에 머물길, 훗날 육지에서 살아가더라도 고향을 기억하길, 지금 발 딛고 선 땅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길 바랐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이들과 손잡고 보폭을 느리게 맞추며 섬을 파고든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고 하지요. 덕적도 아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섬의 풍경이 자리 잡길,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훗날 인생의 오르막 혹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곳이 어디든, 섬은 그들 마음이 머무는 ‘집’이 되어줄 것이다.

덕적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일곱 학생만 공부하던 반에
야구부 학생들이 전학 와 더 활기가 인다.



노란 버스가 갈대 군락지에 학생들을 내려놓았다.
섬을 보고 느끼고, 온전히 간직하도록.

서포리 바닷가에서
내일로 달린다

— 서포리해변의 풍경이 달라졌다. 청춘들이 덕적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힘차게 달린다. 덕적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다. 서포리해변은 모래가 곱고 경사가 완만해, 운동선수들의 전지 훈련 장소로 사랑받아왔다. 메이저리거 류현진도 동산고 시절 이 바닷가에서 땀 흘리며 꿈을 키웠다. 덕적고 야구부에겐 매일이 축복받은 전지 훈련이다.

덕적고 야구부는 우리나라 섬에서 하나뿐인 야구부다. 올해 덕적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5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은 단 1명. 재학생은 고등학생이 14명, 초·중·고 학생 다 합해도 56명, 60명이 채 안 된다. 김학용(69) 전 동산고 야구부 감독이 학교의 미래를 위해 “야구부를 만들어 학생들을 유입하자”라고 제안했다. 섬 주민 859명이 서명해 야구부 창단에 힘을 보탰다.

“학교를 살려야지. 학교가 없으면 섬은 죽어. 배울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거야.” 서양원(70) 덕적면 이장협의회장은 야구부 후원회 부회장을 맡으며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고향을 떠나 힘들게 공부한 그다. 덕적군도 분교가 하나둘 사라지고, 본도 학교가 통합되는 걸 지켜보는 일은 뼈아팠다. 학교를 지켜내고 싶다. “덕적도 아이들이야. 듬직해. 섬이 활기차졌어. 그 기운이 육지까지 뻗어가면 좋겠어.”

청춘들이 덕적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힘차게 달린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 꿈꾸는 대로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다.

서포리해변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덕적고 야구부.
자신의 이름과 덕적도를 빛내기 위해 오늘도 뛰고 또 뛴다.



덕적고 야구부
210 x 297(mm) 커피 그림 2021
덕적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해 달리는 덕적고 야구단.
우리나라 섬 유일의 야구부다.



덕적을
가슴에 품고, 훈련

— 덕적도 외인구단은 장광호(54) 감독과 코치 둘, 육지에서 온 열다섯 선수가 팀을 이룬다. 내년 전반기 고교야구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게 가까운 목표다. 노력이 따르겠지만 자신 있다. “선수들 의욕이 넘치고 기량이 좋아요. 땀 흘릴수록 희망이 커지고 있어요.” 40여 년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덕적고 선수들이 빛내주리라 그는 믿는다.

주장 최민호(18) 군은 동산고에서 전학 왔다.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야구를 했다. 딱! 배트에 공이 부딪치는 소리가, 어린 소년의 앞날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섬에서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선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좋은 성적을 내서 가족과 환영해 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선수들이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2주에 단 하루. 고된 훈련으로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하늘빛이 달라질 무렵이면, 문득 가족이 그리다. 그럴 땐 바다를 본다. 어둠 속 빛나는 별빛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내일, 희망으로 다시 솟아날 태양을 떠올린다.

1933년 개교. 학생들로 북적이던 때도 지금도, 90년 가까이 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친 학교. 그 안의 맑은 눈동자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 꿈꾸는 대로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다.



그림 유사랑
그에게 있어 인천은, 첫맛은 쓰지만 고유한 풍미가 살아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 같다. 송도국제도시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화수동 골목의 기우뚱한 옛집, 소래포구의 거친 갯벌과 덕적도의 푸른 바다처럼 극과 극, 저마다의 강렬함이 있다. 시사만평가이자 커피 화가로 인천을 쓰고 그리고 깊이 새기며 산다. ‘중앙일보’, ‘전자신문’, ‘데일리포커스’ 등 여러 언론에서 30여 년 시사만평가로 활동해왔다. 현재 ‘인천일보’에서 만평을 연재하고, 커피비평가협회 문화예술 이사로 있다.



덕적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미래의 프로 야구 선수들.
벌써 팬이 많다.
이날 연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주민이 찾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가을.
섬세한 바람에도 몸을 흔드는 갈대가 산책하는 이들을 반긴다.

설레는 가을, 설레는 발걸음

위드 코로나 시대, 가고 싶은 그곳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멈췄던 평범한 일상으로의 첫걸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만추에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집콕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 줄 인천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한다. 걸어도, 두 바퀴로 달려도 좋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말자.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두 발로 천천히 ————— 자연이 주는 신표

인천의 길은 산과 들, 갯벌을 지나, 다시 도시로 이어진다. 도심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자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언제 가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품을 내어주는 힐링 생태길을 걸어보자.

인천대공원은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청정 쉼터다.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266만 5,000m²(약 80만 평)의 대지에 숲길과 호수, 갈대 습지 등 숨겨진 명소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정문부터 우거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울긋불긋 치장하고 단풍 퍼레이드를 벌인다. “기분 좋게 걷기 시작~!”

곧 인천대공원 호수에서 시작해 소래포구로 흘러드는 장수천(6.9km)을 만나게 된다. 굽실굽실 흐르는 물길 따라 억새가 손을 흔들어 가을에 걷기 좋다. ‘장수천살리기운동’으로 미꾸라지를 풀고 많은 이들이 애쓴 덕에 철새가 날아들고 잉어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다.

물길 따라 걷다 보면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나타난다. 갈대밭 사이로 빨간 풍차가 돌아가고, 짝조름한 갯내음이 코끝을 간질인다. 정갈하게 놓인 탐방로 따라 갯벌에 공존하는 무수한 생명과 오래된 염전 곁을 지키는 소금 창고,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는 칠면초를 만날 수 있다. 소래포구까지 더 걷는다. 해오름광장에서 눈을 돌면 수인선 협궤열차가 달렸던 소래철교(126m)를 볼 수 있다. 해넘이다리 너머로 떨어지는 붉은 낙조가 아름답다.



📍 인천 돌레길 6코스(9.8km, 3시간 소요)

인천대공원 호수정원 — 장수천변 — 담방마을 — 남동경기장 — 만수물재생센터
— 소래습지생태공원 —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인천대공원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바뀌는 두 개, 즐거움은 무한대 —— 바다를 달리는 자전거 여행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여행은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영종도로 페달을 밟아보자.

영종도 남쪽 해안도로 일대에 8km 길이로 조성된 해안 공원, 씨사이드파크



구읍베테에서 영종역사관을 지나 씨사이드파크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은 그야말로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달리는 해안도로다. 라이더 행렬에 섞여 조금 달리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서 있는 영종역사관을 만난다. 이곳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도중 출토된 선사시대 유물과 영종도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야외 전시물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씨사이드파크는 8km 길이로 조성된 해안 공원이다. 정원과 광장, 인공폭포 등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지루할 틈이 없다. 풍광을 즐기며 달리다 보면 바다에는 인천대교가, 건너편 육지에는 월미도와 송도국제도시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신불IC에서 거잠포 선착장까지는 올 4월 자전거길이 연결됐다. 덕분에 하늘도시에서부터 씨사이드파크~거잠포 선착장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섬을 더 달릴 수 있게 됐다. 거잠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영종도 마시안, 을왕리, 왕산해변까지 이어진다.

※ 영종도 가는 길
배 : 월미도 선착장~영종도 구읍베테(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1시간마다 출발)
공항철도 : 영종역 하차, 주말에는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

영종도 남쪽 해안도로 자전거길(25.2km, 2시간 소요)
구읍베테 — 영종역사관 — 씨사이드파크 — 인천대교 — 거잠포 선착장 — 마시안해변 — 선녀바위 — 을왕리해수욕장 — 왕산해수욕장



구읍베테



영종역사관



마시안해변



선녀바위

영수구 박물관길(2.2km, 2시간 소요)

인천시립박물관 — 청량산 인천대교 전망대 — 청량산 정상 전망대 — 흥륜사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청량산 정상 전망대에서 만난 도심 풍경. 옛 송도유원지부터 송도국제도시, 바다까지 그림처럼 펼쳐진다.



마음에 담으며 걷는 —— 박물관 옆 둘레길

박물관 옆 둘레길은 산자락을 걸으며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다. 마을에서 산으로, 산에서 다시 마을로 이어져 어디에서 시작해도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과거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인천의 역사와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오자.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청량산 정상 전망대



흥륜사



시립박물관 앞 토스트

인천시립박물관 옆 둘레길인 ‘영수구 박물관길’은 박물관과 유서 깊은 사찰을 따라 청량산(172m) 자락을 걷는 역사 탐방길이다. 발아래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걷다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지난해 전통 사찰로 지정된 흥륜사 등 역사 공간에 잠깐 들러도 좋다. 시립박물관에서 시작해 산책길을 10분쯤 오르면 청량산 인천대교 전망대가 바다를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조금 더 오르면 어렵지 않게 청량산 정상 전망대에 이른다. 두 곳에서 모두 옛 송도유원지부터 송도국제도시와 바다까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인천의 아홉번째 전통보존사찰인 흥륜사는 유구한 역사가 깃든 곳이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71호 나무묘법연화경 등 문화재 7점과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27호 아미타불도를 비롯해 1,000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풍경과 낙조가 아름다워 이곳을 마지막 코스로 해도 좋다. 시립박물관 앞마당인 우현마당에는 인천과 수원을 오가며 시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한 꼬마열차 ‘수인선 협궤열차’ 한 량이 전시돼 있다. 시립박물관 앞 포장마차에서 파는 버터 냄새 진한 토스트는 트레킹 후 먹어볼 만한 별미다.



인천시민앓집 북 쉼터



지난 7월 시민의 공간으로
새 단장한 인천시민앓집

옛것과 새것, 바다와 산이 이어져 있는 ——— 송학동 역사 산책

송학동에는 늘 우리 곁에 있었으나 무심히 스쳐 지나왔던 ‘개항장 인천’의 진짜 이야기가 녹아 있다. 옛것과 새것, 산과 바다가 이어져 있는 자유공원과 송학동 일대를 걸어보자.

송학동 역사 산책은 제물포구락부를 찬찬히 둘러보며 시작하면 좋다. 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유산 활용정책 1호 공간으로 인천의 역사를 담은 다채로운 전시로 시민을 맞이한다. 11월 30일까지 기획 전시 ‘제물포구락부 리컬렉션전’이 열려, 지난 2년간 사랑받은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다.

계단 아래 자리 잡은 인천시민앓집은 최근 시민의 공간으로 오롯이 개방됐다. 1967년 제14대 김해두 시장부터 2001년 초대 민선 최기선 시장까지 17명이 생활했으며, 이후 역사자료관으로 활용돼 왔다.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 안에 인천의 역사가 담긴 북 쉼터, 역사 회랑 등이 꾸며져 있다. 역사 전망대에 올라서면 월미도와 인천항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발을 옮기면 담장 너머에 근사한 단독주택이 보인다. ‘건축은 빛과 벽돌이 짓는 시’란 철학을 갖고 있던 건축가 김수근이 1977년에 지은 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축물의 원형을 잘 보존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해, 지난 7월 복합문화공간인 ‘이음1977’의 문을 활짝 열었다.

뒤뜰로 나가 자유공원을 한 바퀴 돌고 언덕을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시원한 그늘을 내어준다. 개항 이듬해인 1884년에 심어져 지금은 어른 두세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끌어안을 수 있는 아름다리 거목(높이 30.5m, 둘레 4.7m)으로 자랐다.

개항장으로 내려가는 길, 소금 창고 부지(송학동1가 8-4번지 일원)에 눈길이 간다. 1939년 신축된 193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적산가옥과 소금 창고(50.24m²) 건물이 송학동 전체를 갤러리 삼아 자리 잡고 있다.

송학동 역사 산책길(1.2km, 1시간 소요)

제물포구락부 — 인천시민앓집 — 이음1977 — 자유공원(한국 최고最古 플라타너스) — 옛 소금창고 — 개항로



제물포구락부



이음1977



자유공원



개항로



막내딸 연정 씨는 아버지의 든든한 동업자다.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를 졸업하고 인천 청년 농업인 단체인
‘청년 4-H’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생산자 소비자 땅에서 식탁까지, 아름다운 연결 고리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삼시 세끼를 먹는 일도 그렇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먹거리가 입에 들어가기까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환경에 짐을 지지 않고 가까이서 길러낸 먹거리로 정성스레 밥상을 차리는 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지구 환경까지 지키는 길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하나

생산자의
선택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일

농사꾼에게 민달팽이는 꽤 귀찮은 녀석이다. 낮엔 흙 속에 숨어 있다 밤이 되면 나타나 애지중지 기르는 농작물을 먹어 치워버린다. 친환경 농법으로 버섯을 기르는 장재경(62) 두리버섯농원 대표의 농장에도 이 불청객이 종종 출몰한다. 버섯은 그 작은 입으로 한입만 깨물어도 자라면서 구멍이 뽕 뚫린다. 하나만 먹으면 될걸, 느릿느릿 잘도 기어 다니며 버섯이란 버섯은 모조리 갇아놓는다.

그러면 장 대표는 불 꺼진 농장에 슬며시 들어가 달팽이의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누가 버섯에 고속도로를 냈을까.” 농장을 찾는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계양산 자락에 자리 잡은 ‘두리버섯농원’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 버섯을 재배한다. 표고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 왕느타리버섯을 길러 회원제로 직거래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이 인증한 ‘농촌교육농장’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흙과 메뚜기가 뛰어노는 들판을 밟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그는 믿는다.

14년 전 제조업을 하던 장 대표는 처음 공장 창고로 쓰려고 이 터를 마련했다. 알고 보니 버섯 재배 농장으로 허가가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된 일, 건너 건너 이야기를 듣고 표고버섯 종균을 심은 자목을 사와 건물에 들였다. 알고 보니 버섯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톡톡’ 팝콘 터지듯 버섯이 피어났다. 경북 문경에서 자목을 실어 오던 중에 비를 맞고 차가 덜컥대면서 종균이 잠에서 깬 것이다. 생명의 경이로움에 가슴이 뛰었다. 그날 이후로 줄곧 흙에 파묻혀 살았다.



버섯을 세 번 재배하고 남은 배지는
친환경 퇴비로 쓴다.
이 거름으로 3년만 농사지어도 땅이 숨을 쉰다.

“경험하고 깨우치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명이 움트는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
장재경 두리버섯농원 대표



두리버섯농원은 애초에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농사를 시작했다. 친환경적인 방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힘들었지만 흔들린 적은 없다. 50명에서 시작해 천 명 가까이 늘어난 직거래 고객에게 눈빛에서부터 믿음을 전하는 일, 국가검증기관이 인증한 친환경 먹거리 표식을 새기는 일은, 생산자로서 긍지고 자부심이다.

그에겐 한길은 걸어온 친환경 농업인으로서 확고한 철학이 있다. 친환경 약재는 사람 몸에 무해한 만큼 해충과 해균도 온전히 막지 못하니, 이를 겹겹히 받아들이는 것. 세상 그 어떤 생명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것. 그래서 오늘도 그는 땅에 깃든 수많은 생명에게 가만히 속삭인다. ‘그래 너희들도 열심히 살렴. 조금 성가셔도 우리 같이 살자’라고.

두리버섯농원
032-523-1261 / 계양구 오리울길 37

바른 먹거리엔
사계절 햇빛과 공기, 흙의 기운,
농부의 정성이 스며들어 있다.



좋은 먹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은, 자연의 흐름 따라 거두었을 때 가장 맛있다. 감자는 밭에서 갓 캐내 찌는 것만으로 포슬포슬 살살 입안에서 녹는다. 초록빛 돌 때 거둬들여 길에서 익힌 토마토는, 땅에서 붉게 익은 열매 맛을 따라갈 수 없다. 땅의 기운을 흠뻑 빨아들이고, 햇살과 바람을 견디며 자란 생명이 가진 힘이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먹거리는 보통 일정한 틀에 짜 맞춰 있다. 긴 유통 기간을 미리 내다보고 수확하고 포장해 내놓는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질수록 맛과 신선도, 영양은 떨어진다. 건강한 밥상에서 멀어진다.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이런 농작물 유통 구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가까워서 더 신선한 먹거리’. 조합은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지역 생산자와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탄탄한 연결 고리다. 미추홀구로부터 위탁받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로컬 푸드 교육을 하고 장터를 열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잇는다.

권순실(59) 이사장은 한 사람의 소비자로 이 조합에 참여했다. 그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1990년대 초반부터 ‘건강한 식재료’를 밥상에 올리기 위해 발로 뚫은 소비자였다. 생활협동조합의 초창기 회원이기도 했다. 그 시절 그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범벅되지 않은 깨끗한 먹거리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 어렵게 온갖 생명이 꿈틀대는 땅을 찾았을 때, 힘들게 키운 귀한 농작물이 정작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도 지켜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도, 선택돼야 의미 있구나.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해야 농민이 사는구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끈끈히 엮여 있다. 소비자가 약을 뿌려 노랗게 바랜 밭에서 자란 열매와 생명이 숨 쉬는 흙에서 정성스레 키워낸 결실의 차이를 안다면, 생산자는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땅을 일굴 것이다. 밥상 위의 행복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자연의 산물은 봄이면 돌아나 자라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이, 사람을 거치며 잠시 순환을 늦춘다. 인천 땅에서 자란 바른 먹거리를 식탁에 올리는 건, 그 자연의 섭리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다.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032-469-3005 / 미추홀구 주안로 117-16 LH행복주택 2층



생산자와 소비자는 끈끈히 엮여 있다.
소비자가 생명이 숨 쉬는 흙에서 정성스레 키워낸 결실의 가치를 안다면,
생산자는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땅을 일굴 것이다.

맛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인천시 푸드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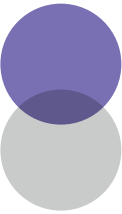
우리 시가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 플랜’ 수립에 나섰다. ‘시민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건강 먹거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 이로써 관내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이와 연결된 환경,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안을 통합 관리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2026년까지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558ha⇒800ha) ▲로컬 푸드 직매장 수 확대(5개소⇒8개소) ▲급식센터 참여 학교 수 확대(0개교⇒350개교)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 증가(3개⇒7개) ▲민관 거버넌스 활동 활성화(0회⇒6회) 등이다. 그 첫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관내 744개교 학교 급식에 인천 쌀을 현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2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의
권순실 이사장

시민 교육 중인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건강한 식재료로 단출하게 식탁을 차리면
몸은 가볍고 살림은 풍성해진다.



환경특별시 인천에 부는 ‘친환경 바람’



우리 시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한 지 1년. 인천의 기업들이 자원순환을 위한 변화와 실천의 물결에 함께 몸을 실었다. 송도국제도시에 본사를 둔 포스코건설은 최근 주민들과 ‘탄소중립 한 달 살기’를 진행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사내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플로깅을 10월부터 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한다.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객실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힘쓰고 있다. 시민과 같이,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봤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로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달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포스코건설, 100여 가족과 ‘탄소중립 한 달 살기’

지난 10월 9일 주말 아침,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탄소중립 한 달 살기-온라인 교육’에 100여 가족이 접속해 있었다. 이들은 평소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한 달째 온라인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이날은 양말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섬유인 양말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예가 진행됐다. 처치 곤란 산업폐기물을 방석이나 겹받침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변신시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험 활동이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유경태(44), 한현주(42) 부부는 “탄소중립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환경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물건을 사거나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들과 환경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해양경찰청·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해양환경보전교육 ‘사랑海, 바다SEA’를 개발, 지난 10월 5일 인천소래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자원순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다육이 화분.
소중하게 키우며
매일 환경을 생각한다.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양말목을 엮어 반려견 목걸이를 만들어냈다.
‘탄소중립 한 달 살기’에 동참한 유다운(6), 유지우(9) 어린이 가족



SK인천석유화학,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지키는 ‘산해진미山海眞美 플로깅’

서구에 자리한 SK인천석유화학은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 ‘산해진미 플로깅’을 시행 중이다. 산해진미는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자’는 의미로 전 직원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산해진미 플로깅을 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한다. 지난 10월 27일 서구청과 ‘환경 사랑 실천 협약’을 맺고, 다양한 자원순환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만 장의 생분해성 봉투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에코백을 제작해 플로깅에 참여한 주민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김민재(36) 씨는 사내 봉사활동을 하며 플로깅의 매력에 푹 빠졌다. “길거리, 공원, 바닷가… 어디에서든 쓰레기봉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보물 찾기하듯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을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지나온 길이 깨끗해진 걸 보면 뿌듯합니다.” 그는 “작은 수고가 모여 큰 힘이 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원 김민재 씨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다.



지난 6월 서구 심곡천 일대에서 산해진미 플로깅을 실천한 임직원들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시공 단계부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어졌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착한 건물·착한 서비스

송도의 야경과 센트럴파크의 자연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의 또 하나의 특별함은 환경을 생각하는 세심함이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시공 단계부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어져, 2011년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회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를 획득했다. 친환경 자재를 쓰고, 다용도 조명과 통유리 창을 통한 자연 채광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활 하수를 모아 정화한 뒤 조경 등에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호텔은 매년 지구의 날 점등 행사를 진행하고, 텀블러와 유리컵 사용 독려,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화분(반려나무) 입양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객실엔 일반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을 함께 비치했다.

윤덕식(47) 총지배인은 “이용객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의 친환경 동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객실에 비치된 ‘재활용 쓰레기통’



출입구에 가까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차량 전용 주차구역’

교육으로 신명나다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여덟 번째 등곳길을 따라 간석동 골목길을 오른다. 50년 전, 만월산 자락에 터를 잡고 명문의 탄생을 알렸던 신명여자고등학교. 학생 간의 우애와 사제 간의 예의, 견고한 뿌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그 길을 김은주 동문(2회 졸업), 원나영(18) 학생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신명여자고등학교의 교문은 처음 그대로 변함없이 학생들을 맞이한다.



학교를 닮은 삶, 학교를 위한 삶

가을을 닮은 탐스러운 꽃을 든 여성이 학교로 들어선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교문은 그 시절 그대로다. 학교 본관까지 이어지는 소향로를 천천히 걸어 본관에 다다르자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맞이한다. 손에 든 꽃다발을 건넨다. 맞잡은 두 손에 진한 추억이 배어 있다. 주인공은 김은주(63) 동문과 김주한(59) 교장이다. 1989년 3월 1일, 대학을 갓 졸업한 김주한 교장은 신명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당시 김은주 동문은 학교 총동창회 동문회장이었다. 그들은 십수 년이 넘는 세월을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썼다. 김은주 동문이 22년간의 동문회장 역할을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그 옛날 초임 교사는 교장으로 취임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라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한다.’ 졸업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지만, 김은주 동문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예의를 중시했던 학풍은 지금까지도 선후배 간, 사제 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1973년 문을 연 학교 구석구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런 모교를 바라보는 김은주 동문의 눈에 아련한 추억이 서린다.

“당시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요즘 같은 계절이면 학교 주변에 코스모스가 만발하기도 했었죠. 입학 초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면서 학교 조성에 일손을 보탰어요. 비 오는 날 흙탕물을 피해 가며 등교하던 기억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1989년 초임 교사 때부터 신명여자고등학교와 함께한 김주한 교장

예의로 지켜가는 명문의 길

김은주 동문이 원나영 학생과 너른 잔디 운동장을 걷는다. 세대를 뛰어넘어 ‘신명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애뜻한 동문이다. 두 사람에게게는 또 하나의 님은 점이 있다. 그 시절 학도호국단 대대장과 현재의 학생자치회 회장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했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군사 교육을 받던 시절이라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인천시 전체 교련 대회도 열렸는데 신명여고는 1등을 놓치지 않았죠.” 학구열도 뜨거웠다. 막차 시간이 지난 늦은 밤까지 교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드넓은 운동장은 학생들을 데려다줄 차량들로 빼곡했다. 한때는 인천에서 명문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입학시킬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곳이 바로 신명여고다. 하지만 학교는 공부보다 예의를 더 강조했다. 경쟁보다 우애와 협력을 가르쳤고, 시기보다 이해와 존중이 몸과 마음에 밸 수 있는 교육을 실천했다. 신명여고만의 특색인 ‘차츰 예절 교육’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귀례 전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과거 정기적으로 학교를 찾아 손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귀례 회장은 일제강점기 말살 된 우리 차 문화를 살려내 대중화시킨 인물이다. 이후에는 최소연 가천대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명맥을 잇고 있다. 학교 역시 예절 교육관을 따로 조성해 학생들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인설차문화전·차예절경연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결실을 맺고 있다.

“예의와 화합은 학교의 오랜 철학입니다. 매년 봄이면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1~3학년을 한 팀으로 구성해 함께 땀 흘리고, 승패와 관계없이 강강술래를 하며 하나가 됩니다. 경쟁을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신명여고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신명여자고등학교는 가천길재단이라는 튼튼한 뿌리에서 자라난 건강한 줄기다.



학교의 트레이드마크인 돌계단에 나란히 앉은 김은주 동문(오른쪽)과 원나영 학생(왼쪽)



여고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학교 뒤편 정자



신명여자고등학교에는 차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승리하다

신명여고는 교정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개교 초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문과 고즈넉한 돌계단은 TV 드라마의 단골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응답하라 1988’부터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호텔 델루나’ 등에 모습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펜트하우스’와 ‘마이 네임’에도 깜짝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사계절이 모두 예쁘지만 이맘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매년 가을이면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시끌벅적해야 할 계절이 코로나19로 잠잠해 아쉽습니다.”

신명여고 하면 ‘소향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틀 동안 펼쳐지는 축제 기간에는 학교의 담장이 허물어진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총출동하는 것은 기본, 금남禁男의 구역인 여고에 남학생들이 찾아와 함께 즐긴다. 인근 주민들도 운동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마을 잔치를 벌인다. 축제 하나에도 화합을 중시하는 신명여고만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 있는 셈이다.

2019년부터는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내 ‘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고교 생활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신명여고는 든든한 뿌리를 갖고 있다. 인천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천길재단의 의료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채로운 인프라와 장학제도는 학생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날개가 되어주고 있다.

“신명여고는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소수의 학생이 원할지라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폭넓은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 세월 쌓아온 학교만의 전통과 노하우, 튼튼한 뿌리가 신명여고를 변치 않는 명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명이 낳은 스타



방송인 이혜영(13회 졸업)

1990년대 모델과 가수, 배우를 오가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친 이혜영. 최근에는 화가로 전향해 개인전을 여는 등 ‘아트데이너’로서 인생 제2막을 열어가고 있다. 평소 황신혜 등 인천 출신 연예인 등과 함께 SNS와 방송을 통해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나운서 최영주(13회 졸업)

SBS 공채 1기 아나운서인 최영주도 신명여고 출신이다. ‘백세 건강시대’ ‘SBS 생활경제’ 등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1997년 한국방송대상 여자 아나운서 부문, 2009년 한국아나운서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미리 가 본 '제3연륙교' 내일의 변화를 여는 '이음의 다리'

갯벌 위에 이룬 기적의 도시. 인천은 언제나 땅과 바다, 하늘에 '새 길'을 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다. 오늘 인천은 또다시 거친 바다 위에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길을 낸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14년 만에 지난해 첫 삽... '바다 위의 예술작품'

2020년 12월 20일, 인천의 해묵은 난제였던 제3연륙교(영종~청라)가 사업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그 후 1년. 우리 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제3연륙교의 청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드디어 해상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송도·청라·영종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연결을 완성하는 제3연륙교는 독창적인 문형(Π+Π)을 뽐내며 '바다 위 예술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2개의 주탑은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에 도전한다. Π 모양의 주탑 꼭대기엔 '세계 최고 높이 주탑 전망대'가 만들어져 서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새 길'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언제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최태안(49) 인천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교량 기능을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오는 2025년 개통된다.



1. 제3연륙교 조감도. 세계 최고 180m 높이의 주탑 전망대
2. 주탑 하부 '서해관람길'과 '서해관람길' 센터

세계 최고 높이 전망대, 사람과 자연이 찾아들고 머무르는 쉼터'를 목표로 한다. 180m 높이의 주탑 꼭대기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전망대가 꾸며진다.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교량 전망대인 미국 내로스 교량 전망대(128m)보다 52m나 높다. 주탑 하부에는 바다 위를 거닐며 바로 눈앞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서해관람길'과 '서해관람길' 센터가 조성된다. 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야간 경관 조명으로 밤에도 빛난다.

시는 제3연륙교 개통에 발맞춰 청라와 영종을 아우르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을 기획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3개의 교량(제3연륙교, 무의대교, 평화대교)과 3개의 섬(영종도, 무의도, 신도), 3개의 자치단체(중구, 서구, 옹진군)로 300만 인천시민을 300리 자전거 길로 잇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길을 따라 인천 천혜의 관광자원인 서해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제3연륙교와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하는 2025년에는 영종도가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청라~여의도 연결 중심축

총사업비 6,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총연장 4.67km(영종 중산교차로~남청라 IC)의 왕복 6차선 해상 장대 교량이다.

이로써 인천의 3개 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영종·청라의 성장을 견인할 교통축이 완성된다. 나아가 영종~청라~루원시티~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상업 클러스터를 잇는 핵심 기반 시설이 갖춰진다.

최 본부장은 제3연륙교가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시민들의 삶과 투자 유치·개발 사업에 상상 이상의 파도를 일으킬 겁니다. 인천의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연륙교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여의도에서 30분이면 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서해 남북평화도로까지 완공되면 대한민국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제3연륙교를 통해 개성까지 연결된다.



3. 육지와 영종을 잇는 세 번째 다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영종·청라의 성장을 견인할 교통축



11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창조미술협회전 ‘인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다’ 11월 3일~11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근정 서주선 작품전 ‘극과 극의 만남’ 11월 12일~1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꿀갑, 글꼴을 노래하다 11월 17일~25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그림책 아트 프린트 ‘우리 세시풍속 도감’ 11월 3일~11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22회 인천시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11월 12일~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82회 인천시사진작가협회회원전 11월 19일~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4회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예술제 11월 5일~1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0회 수형회전 11월 12일~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39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11월 19일~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대한민국서화동원전 ‘인천서예가 - 한국서예가’ 11월 5일~1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한국환경사진인천광역시본부전 11월 12일~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33회 인천사진연합전 11월 19일~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21 인·수·오·감전 11월 5일~1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10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11월 16일~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21 ARTPLUG ‘The Beginning’ 11월 28일까지 아트플러그 연수
	한·중 수교 29주년 미술교류전 ‘한중 중견작가 그룹전’ 11월 16일~20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57회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11월 26일~12월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이달의 공연·박람회

02 화 제2회 전국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무료 ☎ 032-522-8345	04 목 제38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32-885-3611	06 토 스테이지149 – 어린이 명작 무대Ⅱ 창작 인형극 ‘연희도깨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원 ☎ 1588-2341
03 수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제36회 정기연주회 ‘별처럼 빛나는 너희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2만원 ☎ 032-438-6040	05 금 2021 힐링 콘서트 시민 곁으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32-872-7873	작곡가 시리즈 - 라흐마니노프 Ⅱ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032-453-7700



플레이잉연수 - 음악당달다×마린보이×팀클라운 * 장소 추후 공지 6일~7일 오후 2시 무료 ☎ 070-4169-6459	14 일 창작 뮤지컬 발레 ‘춘향’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032-815-1227	콘서트 오페라 시리즈 Ⅱ ‘박쥐’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5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032-453-7700
다락방 콘서트 시리즈 Vol. 4 ‘최백호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 032-579-1150	17 수 연극 전태일 – 네 이름은 무엇이나?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2만5,000원 ☎ 032-423-0442	음악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032-500-2000
11 목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V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53-7700	2021 커피콘서트 IX 베이스 함석헌 ‘선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2,000원 ☎ 1588-2341	25 목 서현진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춤출까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032-500-2000
12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8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나우 III – 신창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18 목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8일~19일 오후 7시 30분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 010-9880-5705	제2회 인천리빙디자인페어 송도컨벤시아 1, 2홀 25일~28일 1만원(사전 등록 무료) ☎ 051-740-7707
연극 ‘달려라, 아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2일 오후 7시 30분 13일 오후 3시, 7시 전석 2만원 ☎ 1588-2341	종이회전극 ‘파푸아뉴기니의 돼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원 ☎ 032-500-2000	26 금 미션 레나타 몽마르뜨 밴드 연수아트홀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070-4169-6457
13 토 플레이잉연수 - 옥상달빛×윤탄탄 * 장소 추후 공지 오후 2시 무료 ☎ 070-4169-6459	인천아시아아트쇼 2021 송도컨벤시아 1, 2, 3홀 18일~21일 1만원(학생 20% 할인) ☎ 032-710-7407	오늘도 무사히 III : 소란×프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시야제한석 1만원 ☎ 032-500-2000
	20 토 2021 밴드데이 ‘오늘의 우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3만원 ☎ 1588-2341	오늘도 무사히 III : 소란×프롬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시야제한석 1만원 ☎ 032-500-2000



◦ IMAGE NEWS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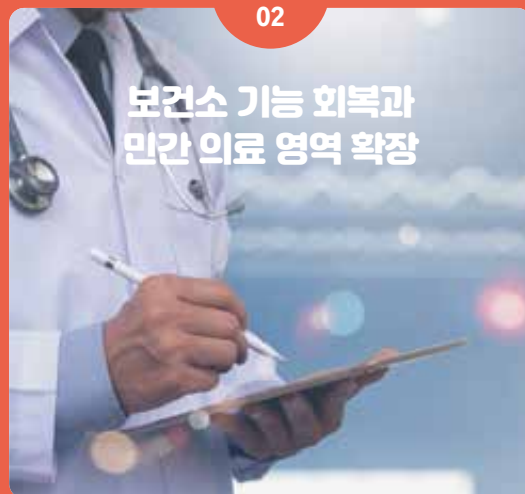
인생 경제 활성화와
지을 방역



#영업 규제 단계적 해제 #재난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중소상공인 위한
인천e음 사업 지속 추진과 핀셋 지원
#방역 수칙 위반 업소와 개인에 대한 책임 부과

02

보건소 기능 회복과
민간 의료 영역 확장



#워크 스루 임시 출장 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의료 기관 #백신 접종 의료 기관
민간 위탁 전환 #재택 의료 기관 확대
#중단된 보건소 진료 기능 회복

03

생활치료센터의
기업 환원



#기업 연수 시설 환원
#공공 기관 시설 및 민간 호텔 이용(비용 지불)

04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



#공공 의료 체계적 투자
#종합 병원 확보(송도, 영종, 청라 추진 중)
#공공 숙박 시설 확충 및 필요 시 격리 시설로 전환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한국판 실리콘밸리 ‘인천스타트업파크’가 개관 8개월 만에 67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며, 스타트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천e음’에서 인천의 14개 전통시장 장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평일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주말에는 다음 날 평일 오전 중에 배달됩니다.
- + 우리 시가 무증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본격 운영합니다. 인천의료원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를 지원합니다.
- + 우리 시가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 우리 시가 주요 교차로, 분기점 등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노면 색깔 유도선’을 칠했습니다.
- + 인천의 수돗물이 ‘인천 하늘수’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로 시민이 선정했습니다.

◦ NEWS BRIEF ◦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시정 ‘인천시 시민청원’



우리 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운영한 시민청원, ‘시민이 청원하고 공감하면 인천시가 답변합니다’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인천시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통해 지난 9월 13일~30일 ‘시민의 눈에 비친 시민청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다. 온라인 토론에는 인천 시민 583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청원의 인지도 및 경험도와 관련, 토론 참여자의 88.3%가 ‘시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0.4%가 ‘시민청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책운영 효과와 관련해서는 토론 참여자의 85.0%가 ‘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다’고 응답했으며, 86.1%가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고 답했다. ‘시민청원은 OOOO이다’로 표현하는 열린 토론에는 소통창구·민주주의·참여정치·시민권리·신문고·용기·혈액순환·암행어사·메아리·양날의 검 등 다양한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홍보부족·관심부족·형식적·보여주기 행

정 등 시민청원 운영의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장 가슴에 남는 키워드로 ‘시민청원은 우체통이다’를 꼽은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의미 있는 청원들이 공감 부족으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땐 분실된 편지와 같을 수 있겠다”면서 “적은 공감을 얻은 의견이라도 반복되는 청원에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시민 모두의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지나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시민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1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방문자 수는 102만5,508명에 달한다. 등록된 총 4,420건의 청원 중 1,307건의 청원에 인천시가 답변했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418

코로나19 재택 치료 본격 운영… 인천의료원 24시간 대응 체계

우리 시가 지난 10월 19일 코로나19 재택 치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백신 접종률 증가와 중증화율 감소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형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운영한다.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1일 2회 대상자의 건강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119에 긴급 이송을 요청하게 된다. 재택 치료 대상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10일 이상 재택 치료를 받고 이상이 없을 땐 의사 진료를 받은 뒤 격리가 해제된다.

시 감염병관리과 032-440-7859

‘서해남북평화도로’ 시발점 인천 영종도~신도 연도교 본격 착수

우리 시가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시발점인 영종도~신도 구간 연도교 공사를 지난 10월 5일 본격 착수했다. 이 구간은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서해 연안 지역의 인적·물적 물류체계를 확보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1,251억원을 들여 영종도~신도 간 3.5km 구간에 2차로 교량을 건설한다.

시 도서관과 032-440-4994

인천시청 건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우리 시가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에 선두수범하고, 안전성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시청 청사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본관 건물에 10kW(5kW급 2기)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게 된 국비 1억 3,000만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3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인천시청 수소연료전지는 본관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에 5kW급 2기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매년 황화합물(SOX) 10g, 질소화합물(NOX) 3,000g, 미세먼지 30g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2

인천시 수소 시내버스 5대 운행 시작



우리 시가 친환경 수소 버스 시대를 열었다. 지난 10월 6일 오전 5시부터 수소 시내버스 5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수소 버스들은 13, 46, 82번 3개 노선에 고루 배치돼 운행할 예정이다. 수소 버스는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이다.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한다. 공기 중의 산소를 얻는 과정에서 버스에 장착된 필터가 공기정화기 역할을 하게 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54

전통시장 장보기도 ‘인천e음’에서… 당일 배달해 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천e음’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배달받을 수 있다. 서비스에는 동구 현대시장·송현시장, 미추홀구 용현시장·석바위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간석자유시장·구월도매시장, 부평구 부평로터리지하상가·부평문화의거리·부평광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계산시장, 서구 가좌시장 등 전통시장 14곳, 202개 상점이 참여한다. 온라인몰에 등록된 채소·과일·육류 등 3,000여 개 품목 중 구입 희망 물품을 골라 주문하면 평일에는 2시간 이내(오후 5시 이전 주문), 주말·공휴일에는 다음 날 평일 오전 중에 배달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2



시민이 선정한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 하늘수’



‘인천 하늘수’가 새로운 인천의 수돗물 이름으로 정해졌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온라인·현장 투표를 통해 수돗물의 새 이름을 정했다. 이는 ‘세계적인 국제공향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은 후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수돗물 혁신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달에는 수돗물에 대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았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2

월미도~영종도, 5인 이상 단체 자전거 뱃삿 30% 할인

우리 시가 자전거 관광 확대를 위해 월미도~영종도 여객선 자전거 탑승 요금을 지원한다. 월미도~영종도 차도선 운행사인 세종해운(주)과 합의해, 5인 이상 단체 자전거 이용객은 기존 3,500원에서 약 30% 할인한 2,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 선착장에 도착하면 하늘도시 옆으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영종도 남쪽 해안을 따라 용유도까지 달릴 수 있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77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우리 시가 5세 이하 어린이 등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9만

9,000여 명이다.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11월 중 동시에 입금할 예정이다. 시 보육정책과 032-440-2894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 2024년 6월 개관

수도권 내 첫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시는 11월 10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대에 국비 1,036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바다의 역사와 항만의 가치 등을 알리는 해양교류·해운항만·해양문화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22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 ‘브릿지보증’ 시행

우리 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시행 중이다. 브릿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폐업 이후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신보를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 ▲보증 만기가 1개월 이내이며 ▲개인 신용 평점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문의(1577-3790)하면 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산업단지에 사계절 푸른 ‘스마트가든’ 설치

우리 시가 올해 공장 지역 및 공공기관에 녹색 힐링 공간인 스마트가든 20개를 조성했다. 내년에는 24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가든은 산업단지 및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휴식과 치유·관상 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 정원이다.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 식물을 심고 자동관수 시스템 및 생장 조명 등을 갖춰 관리도 쉬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 녹지정책과 032-440-3693

인천시, 선박수리 제조업 한곳에 모은다

우리 시가 조선업체 집중·집적화 추진을 위한 선박수리 조선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선박수리 제조업체를 한데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선박 건조 및 외관 수리를 하는 업체는 총 36개로 중구·동구·서구 등 지역에 산재해 있다. 시는 북항 수리조선단지의 운영 현황 및 수리 능력 등을 분석하고, 선박수리 시설 개조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기존 부지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박수리업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 수리산업으로서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17

지역 서점, 공공도서관 담긴 인천책지도 제작

우리 시가 동네 책방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 서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서점 94개소와 62개 공공도서관, 312개 작은도서관 현황을 ‘2021년 인천책지도’로 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 시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온라인 지도 사이트 구축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으로도 발간해 시민과 도서관에 지역 서점을 홍보하는 등 시민과 지역 서점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 도서관정책과 032-440-7872



인천 주요 교차로 29곳에 ‘색깔 유도선’ 설치

우리 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차로 등 29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 작업을 완료했다. 유도선은 노면에 색을 입혀 차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에서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9년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부평시장역 오거리의 경우 설치 전과 비교해 약 30%, 송림오거리의 약 50%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4

인천스타트업파크, 개관 8개월 만에 672억원 유치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공간 ‘인천스타트업파크’가 개관 8개월 만에 67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211곳의 기업이 참여해 이룬 성과다. 더불어 매출 180억원, 특허 출원·등록 100여 건을 달성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공모 사업에서 인천시가 1위로 선정돼 구축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중국 중관촌(中關村)과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여 개 사무실과 40여 개 회의실, AIoT(지능형사물인터넷) 실증지원랩 등을 갖췄다. IFEZ 스마트시티과 032-453-7485

‘인천시민디자인한마당’ 열린다

우리 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 및 회의실에서 2021년 ‘제7회 인천시민디자인한마당 및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 7년째 이어온 인천시민디자인한마당에서는 유공자 표창, 디자인정책 발표, 시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분야별 토론 등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행정 혁신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에 더해진 빛, 색, 안전’을 주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사로 꾸며지며, 온라인을 통해 도시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94



◦ COUNCIL NEWS ◦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 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를 여는 데 함께 힘을 모은다. 시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 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GM과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가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10월 21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됐던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 점검, 한국GM(지역 생산 차량) 공공 구매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관별 추진 상황 결과 6건의 안건들이 추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GM 부평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민과 시의회의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천e음’ ‘배달e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0월 20일 ‘배달e음’의 개방형 배달 서비스 정착과 ‘인천e음’ 결재 장애 문제점 등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희창 인하대 산학협력단 교수, 강희두 코나아이 이사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달e음과 인천e음 활성화 방안, 누구를 위한 인천e음인가, 지역업체 참여 및 상생방안 고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건교위, 제3연륙교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3연륙교 건설현장을 10월 8일 방문해 공사 중 발생될 환경 문제, 공사장 안전, 주민 요구 반영 및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한화건설과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사 중 발생될 환경 문제 방지와 안전하고 철저한 공사 진행을 주문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는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교육위, 녹색어머니연합회 발전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역 내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위는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각 기구별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지난 10월 14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위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역 내 학교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통학로 안전지킴이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021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기간 : 2021. 11. 6.(토)~11. 19.(금) (14일간)
감사 주체 : 상임위원회(6개반 47명)
대상 기관 : 113개 기관(실·국, 출자·출연 기관, 위탁사무 처리 기관 포함)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총 543명
감사 자료 제출 요구 : 총 1,628건

일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11/8(월) 10:00 am	의회사무처					
11/9(화) 10:00 am		대변인, 감사관, (재)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일자리경제본부 (사업소 포함)	교통건설국	공공도서관(8개) (북구, 중구,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도서관)
11/10(수) 10:00 am		소통협력관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환경국	도시재생복지국	직속기관(6개)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교직원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1/11(목) 10:00 am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천여성가족재단	도시재생복지국 (사업소 포함), 인천종합에너지(주)	도시계획국	직속기관(4개)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학교지원단)
11/12(금) 10:00 am		기획조정실 (사업소 포함)	인천시설공단	경제자유구역청	해양항공국 (사업소 포함)	교육지원청(5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11/15(월) 10:00 am		재정기획관	복지국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포함)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5개)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마을교육지원단)
11/16(화) 10:00 am		행정국	문화관광국 (사업소 포함)	농업기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2개)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11/17(수) 10:00 am		의정활동 자료수집	건강체육국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환경공단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정활동 자료수집
11/18(목) 10:00 am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교통공사	의정활동 자료수집
11/19(금) 10:00 am		소방본부 (산하기관 포함)	여성가족국 (사업소 포함)	의정활동 자료수집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도서관(8개), 직속기관(9개), 교육지원청(5개), 인천광역시교육청(7개)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앓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 인천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tv.icouncil.go.kr ※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각 위원회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포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인천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



조형섭 작가



개성 있는 화풍으로 주목받는 인천의 젊은 작가다. 인천 섬 공공 미술 프로젝트와 열우물 프로젝트 등 생활 접점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2NE1, 비스트 등 국내 유명 그룹의 뮤직비디오 무대 벽화 작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올 4월에는 첫 번째 개인전도 열었다.



조형섭 작가의 채색 가이드

▷ 10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수현 서구 심곡로



송병관 연수구 센트럴로



이찬희 남동구 매소홀로



김예빈 연수구 원인제로



김용원 부평구 길주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11월 19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 사람이라면 인천대공원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모두가 갖고 있을 법하다. 친근하고도 특별한 인천대공원은 계절별로 그 매력을 달리하지만, 유독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린다. 그중 싱그러움으로 넘실대던 초록빛 나뭇잎이 알록달록 가을빛으로 물드는 메타세쿼이아길은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다. 책갈피에 끼워두고 싶은 고운 낙엽들이 수북이 쌓인 쪽 뺨은 길을 걸으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한다.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도 가을이면 인천대공원을 빼놓지 않고 찾는다. 이 가을, 인천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는 새로운 계절로 가자.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Green 아이디어로 지구를 푸르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Green 스토리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 : 11월 30일까지
응모 자격 : 인천 시민
분야 및 내용 : 공익 콘텐츠(활동 영상),
팩트 체크 콘텐츠(영상, 카드 뉴스, 슬로건)
참고 : ㉠ kcmf.or.kr/comc/Incheon
접수 : ㉠ forms.gle/sU6U31SQVZERKWL9
문의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032-722-7922~4

0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021년 제2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Love me right’를 온라인 개최합니다.

주제 : 장애인의 인권과 사랑
일시 : 11월 4일~5일
프로그램 : 개막작 및 장애인 인권 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문의 : 함께걸음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032-428-6039

03 배움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천여성복지관에서 2021년 제4기 사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목 : 전문 기능 과정, 실용 창업 과정,
문화 아카데미 과정, 단기 특강, 1일 특강
교육 기간 : 11월 22일~12월 18일(4주 과정)
참고 : ㉠ www.incheon.go.kr/www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 032-440-6530

04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 받아보세요

우리 시가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장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 : 인천 거주 구직자
지원 기간 : 11월(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 ㉠ incheon.jobeasy.kr
문의 : 스마트소셜 ㉠ 070-7834-7855

05 어린이 안전 교육 뮤지컬로 배워요

우리 시가 ‘2021년 어린이 안전 교육 뮤지컬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합니다.

공연명 : 지구가 뜨거워요
일시 : 12월 10일까지 게시
시청 :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내용 :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지진 등 재난 대처
방법 및 환경보호 방안 안내

[만족도 조사 이벤트]

참고 : ㉠ naver.me/501PMPU2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032-440-5737

06 내 손으로 캠프마켓을 가꿔보아요

우리 시가 ‘2021 제4회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기간 : 12월까지
장소 : 캠프마켓 개방 구역, 시민 소통 공간 인포센터 일원
내용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 시민 공론화,
시민 문화 행사 등
참고 : ㉠ www.incampmarket.com
문의 :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사업 운영사무국
㉠ 02-322-5670

07 힐링의 시간 ‘화도진 음악회’

화도진문화원에서 ‘제8회 화도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8일 오후 7시
장소 :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내용 : 파미안 싱어즈 공연
관람 신청 : ㉠ www.hdjcc.or.kr
문의 : 화도진문화원 ㉠ 032-777-8957

08 가을밤, 온라인으로 즐기는 공연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스파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기간 : 11월 6일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내용 : 팝페라, 포크, 국악, 오케스트라 등 인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영상 시청 : ㉠ www.youtube.com/channel/
UC6bHyd__xomv-EUZONbTyFg

09 노동자의 길 함께 걸어요

화도진문화원에서 동구 노동자들의 일터와 활동 공간,
문화가 담겨있는 ‘노동자의 길’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간 : 11월 3일, 10일, 13일, 17일, 24일
오전 10시~낮 12시
내용 : 양키시장, 미림극장, 삼화 제분 등 동구의 노동
현장을 멘토의 설명과 함께 탐방
참여 방법 : ㉠ naver.me/5MUmTZPZ
문의 : 화도진문화원 ㉠ 032-777-8957

10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우리 시가 ‘참! 좋은 부모 되기 힐링 토크쇼 및 부모 교육’을 개최합니다.

방송 기간 : 11월 6일, 13일 오후 3시
방송 내용 : 아빠가 더욱 행복한 놀이 배우기, 아빠는
처음이라~ 아빠 육아의 모든 것
방송 매체 :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NIB남인천방송,
SK브로드밴드
문의 : 시 육아지원과 ㉠ 032-440-2952

**11 감춰왔던 끼 맘껏 발산해 보세요**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제30회 인천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 : 11월 12일까지
대상 : 전국 만 9세~만 19세 이하
청소년(재학 여부 무관)
제출 방법 : ㉠ i-youth@naver.com
참고 : ㉠ www.insiseol.or.kr/
inform/news.asp
문의 : 인천청소년수련관
㉠ 032-456-2433

**12 예고 없는 재난, 미리 대비하세요**

우리 시가 ‘2021 재난 대응 안전한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시 : 11월 4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시청 재난안전상황실(IDC 6층)
재난 유형 : 인천항 여객선과 화물선 선박 충돌 사고
훈련 유형 : 토론 훈련
(상황 판단 회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전한국훈련 국민 참여 이벤트]

참고 : @withyou3542 인스타그램
문의 : 시 사회재난과 ㉠ 032-440-1846

13 ‘아이사랑꿈터’에 놀러 오세요

우리 시가 영유아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운영 중입니다.

대상 : 부모(보호자) 동반 영유아(만 0~5세)
시간 :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신청 : ㉠ www.kkumteo.or.kr
문의 : 시 육아지원과 ㉠ 032-440-2957, 9

14 다양한 연수의 모습이 작품 속으로

연수문화원에서 생활 문화 동호회 및 예술인 전시회
‘연수를 담다’를 개최합니다.

전시 일시 : 11월 10일~12월 14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행사 장소 : 청학문화센터 전시실
관람 방법 : 현장 무료 관람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보고, 추억하고, 사랑하다

‘애관’

愛
觀



애관극장 영상실에서 윤기형 감독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4년 전, 애관극장에서 윤기형 감독을 처음 만났다. 당시 그는 작은 캠코더 두 대를 들고 3년 동안 동인천 일대를 누비며 극장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날, 함께 공간 깊숙이 파고들어 120여 년 시간의 파편들을 그려모았다. 그리고 2021년 오늘,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한다’가 세상의 빛을 봤다.

‘보는 것을 사랑한다’ 시사회가 지난 10월 20일 애관극장에서 있었다. 윤 감독은 “오랜 도시 인천과 애관극장에 대한 나의 존중이다”라며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극장 애관을 추억하고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애관극장이 있는 경동 거리는 인천의 ‘시네마 천국’. 동방, 문화, 미림, 오성, 인영, 인천, 인형, 키네마, 현대 극장... 그 옛날 할리우드 키드들은 사람이 바글거리는 틈에 끼치발을 달고 스크린 너머 세계를 꿈꿨다. 지금은 흑백영화처럼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애관과 미림만 남았다.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애관에 추억 한 자락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인천 역사의 한편을 본다. 애관극장에서 영화 ‘옥자’를 개봉한 감독 봉준호, 인천 출신 배우 최불암과 박정자, 개그맨 지상렬 등이 극장에 얹힌 추억과 사랑을 전한다. 인천 시립박물관 유동현 관장, 소설가 양진채, 인천도시역사관 배성수 관장(인터뷰 당시) 등 반가운 얼굴들도 추억의 향기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이날 인터뷰한 많은 지역 인사들이 극장 좌석을 채우고 영화를 감상했다. 기억을 되짚고 추억에 잠겼다. “애관에 누구나 사연이 얹혀 있죠. 이 일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꿈을 키우던 생각이 나네요.” 동네 주민에겐 애관의 시간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애관은 중구, 동구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이예요. 소중한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밤은 깊어갔지만 이야기꽃은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

자그마치 126년, 애관은 인생이라는 무대에 인천사람들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우리 생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 애관극장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보는 것을
사랑한다

감독 윤기형
제작 고양이구름필름
개봉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0월 인천도호부관아



문학산 아래서
인천 다스리던 관청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문학초등학교(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교문을 지나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펜스 안에 있는 건축물 두 개가 눈에 들어온다.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는 ‘맞배지붕’과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둥 위에 짜임새(공포)를 받친 ‘주심포柱心枓’ 양식을 한 이 건축물은 인천도호부관아(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호)의 일부이다. 인천도호부관아는 말하자면 지금의 시청이다.

인천도호부관아를 언제 건립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전기 문신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쓴 <인천부승호기>는 1424년(세종 6년) 객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객사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지붕의 기와엔 ‘강희 16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숙종 3년(1677)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불전쟁(병인양요, 1866), 조미전쟁(신미양요, 1871)을 치른 이후 1871년 기록엔 ‘향청 13칸이 무너져 단지 4칸만 남아 있고, 군관청 7칸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고 전한다. 1899년 <인천부읍지>는 그러나 객사 20칸, 동헌 10칸, 내동헌, 어용청, 수미고, 군기고 등 원래의 규모를 밝히고 있어 어느 시점에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인천도호부의 건물 대부분은 또다시 불에 타거나 헐리고 객사 일부와 동헌 건물 두 채만 남아 인천문학초등학교를 세울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 예를 올리거나 사신이나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한 곳이며 동헌은 정무를 보던 건물이다. 2016년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옛 인천도호부관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축대의 석렬과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문학초등학교가 1917년 ‘부천공립보통학교’란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다. 일제는 현재의 중·동구 지역만 ‘인천’으로 남기고 나머지 지역과 부평을 통합해 ‘부천’으로 만들었다. 인천도호부관아가 있던 미추홀구 문학동은 부천군에 편입됐고 인천도호부관아 역시 ‘부천군청’으로 사용되다 1917년 부천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일제는 조선 시대 이래 ‘관청’으로 사용한 건물에 대한 조선 왕조 흔적 지우기에 나섰고 이에 객사는 새로 제정한 학교령(1908)에 따라 소학교 교사로, 동헌은 면사무소나 경찰서 등의 건물로 사용했다. 부천공립보통학교는 1922년 일본인 교장의 한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민족 모욕과 차별에 항거, 동맹 휴학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인천 부역 확장에 따라 문학동이 다시 인천으로 편입되며 부천공립보통학교는 1937년 ‘문학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꾼다. 인천문학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03주년을 맞았다.

2001년 10월 인천시민의 날, 문학경기장 맞은편에 새로운 ‘인천도호부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시가 조선 시대 관아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재현해 건축한 것이다. 1만1,000여m² 부지 위에 420여m² 면적으로 지어진 동헌, 공수 등 7개 건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는 중이다.

인천 지명

서구의 옛 이름 ‘서곶’

1988년 1월, 북구에서 서구가 떨어져 나와 새로운 구區로 독립했다. 서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기 전에는 흔히 ‘서곶’으로 불렸다. 서곶이란 ‘서쪽에 있는 곶’이라는 뜻이다. 이 일대의 행정 중심지였던 부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구도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북서구가 아니라 서구라고 부른다. 이 역시 북구에서 떨어져 나온 구이고, 지금의 부평과 계양인 북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 있기에 붙인 이름이다. 우리말 땅 이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곶’은 ‘바다나 호수 등을 향해 뾰족하게 내민 땅’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지만 땅 이름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육지 안에서 ‘산줄기가 길게 뻗어 내려온 곳’에도 종종 ‘곶’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한마디로 ‘길고 뾰족하게 내민 땅’을 곶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串이라 쓰며, 岬(갯)이라는 한자도 곶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곶을 다시 정리하면, 부평 중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곶 동네라는 뜻이 된다. 지금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매립 사업으로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원래 서곶은 계양산에서 천마산과 원적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황해 바다를 향해 완만하게 늘어져 내려온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곶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쓴 이름이었기에 1988년 서구가 북구에서 독립할 때 ‘서구’가 아니라 ‘서곶구’로 부르자는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한다. 또한 서구로 이름이 정해진 지 오래인 지금도 서곶초등학교 등의 이름에 남아 여전히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2001. 11. 15
영흥대교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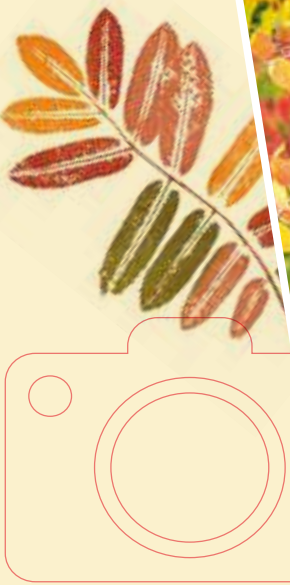
인천 소사

선재도와 영흥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건너야 한다. 선재대교는 육지와 섬을, 영흥대교는 섬과 섬을 이어준다. 선재대교는 2000년 11월 17일, 영흥대교는 이듬해 11월 15일 각각 개통했다. 두 다리는 한국남동발전이 영흥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영흥면 주민의 교통 편의를 목적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 채납했다. 두 다리의 개통으로 영흥면에는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이동의 편리성 향상은 기본, 교육적 혜택과 지역 발전 효과까지 더해지며 두 개의 다리는 두 개의 섬이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매개가 됐다.

그때, 11월의 인천은...

- | | |
|--------------|-----------------------|
| 1889. 11. 01 | 대불호텔 개업 |
| 1896. 11. 04 | 담동성당 축성식 거행 |
| 1945. 11. 15 | 인천 최초의 시의회 개최 |
| 1952. 11. 30 | 인천시교육청 개청 |
| 1984. 11. 15 | 새얼문화재단 ‘제1회 가곡의 밤’ 개최 |
| 1992. 11. 12 | 인천국제공항 기공식 거행 |
| 1994. 11. 30 | 인천종합터미널 기공식 거행 |
| 2000. 11. 20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 |

낭만에 대하여



사연 유서진(연수구 동춘동)

4년 전 11월, 이름처럼 자유롭던 시절 ‘자유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절을 가릴 것 없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유공원의 백미는 가을입니다. 머리 위로 흐드러진 단풍을 배경 삼아 낙엽 밟으며 사뿐사뿐 걸던 그 길은 추억이고 낭만이었습니다. 세월이 물들어가는 나뭇잎 색깔처럼, 4년이란 시간은 삶에 많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2018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고, 올해 6월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이도 얻었습니다. 자유는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곧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아이와 함께 자유공원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낭만적인 이 계절, 무르익은 가을처럼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배호 50주기'와 인천 대중음악사

글 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대학생이던 1980년대 중반 ‘도화가요제’ 본선에 나갔었다. 인천대학교가 매년 축제 때 개최하는 창작곡 경연대회였는데 대학가에선 제법 유명했다. 친구가 인천대 ‘포크라인’이란 통기타 동아리 회원이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참가 기회를 주었으므로 친구와 듀엣으로 출연할 수 있었다. 수상권엔 들지 못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바이브레이션 아닌 바이브레이션으로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떠오른다.

걸출한 뮤지션을 많이 배출하던 인천은 대학생들까지도 대중음악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통기타와 그룹사운드가 대세였던 1980년대만 해도 인천전문대학 밴드 ‘4막5장’ 보컬이던 이선희가 ‘[에게]’란 노래로, 인하대학교 밴드 ‘꼬망스’ 출신 박영미는 ‘이젠 모두 잊고 싶어요’란 노래로 각각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음악 도시 인천’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이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인천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은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다. 건인차는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음악 클럽이었다. 부대 안은 물론이고 부대 주변엔 미군을 상대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음악 클럽이 성업을 이루었다. 방송이나 무대가 변변치 않던 시절, 클럽은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좋은 무대였다. 가수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미8군 무대에 서기 위해 부대 근처에서 합숙을 하며 피나는 연습에 매진했다. 인천 출신 많은 음악인들은 그렇게 미군 클럽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으며 가수로 성장해 나갔다. 송창식은 신포동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팝, 재즈 음악을 따라 부르며 자랐고, 김홍택은 신포동에 살던 미군으로부터 기타를 배워 훗날 ‘키보이스’를 결성해 ‘한국의 비틀스’란 찬사를 얻었다. 가수이자 말 잘하는 사회자였던 박상규는 ‘조약돌’ ‘친구야 친구’란



연안부두 해양관광에 있는 배호 노래비

노래로 히트를 쳤다. 그는 수인역에서 포장마차, 송의동 나이트클럽 ‘오인천’, 송도에서 오리고기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부평 방앗간집 아들 형제인 유심초는 ‘사랑이여’란 노래를 국민가요로 만들며 부평 대한극장 건너편에서 ‘그랑프리’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처음 ‘술개트리오’로 시작해 나중에 ‘소리새’로 이름을 바꾼 한정선·황영익·김광석은 ‘아직도 못다한 사랑’ ‘그대 그리고 나’와 같은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이다. 예술적 천재성으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정선은 한동안 부평역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 2019년 동인천에 ‘솔트’란 음악 카페를 차렸으나 그해 말 눈을 감고 말았다. ‘내님의 사랑은’이란 노래를 발표한 ‘따로 또 같이’의 리더인 이주원은 제물포역 근처에서 ‘혼비여비’란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며 포크 음악의 맥을 이은 인물이다. 인천대를 다니던 가수 이소라도 이곳을 오가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신포동의 음악 클럽 ‘흐르는 물’은 이주원 사망 10주기인 지난 2019년 4월 ‘고 이주원 10주기 헌정 공연’을 열어 포크 음악 1세대의 예술혼을 추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평 신촌 출신인 최성수, ‘순이생각’의 백영규에서부터 구창모, 서울패밀리, 이승재, 신지에 이르기까지 인천 출신 가수들은 차고 넘친다. 연주자들은 훨씬 더 많다.

대중음악사의 앞줄에 배호란 가수가 있었다. ‘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 ‘돌아가는 삼각지’ 등 1960년대 스윙재즈 음악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배호는 톱스타가 되기 전까지 캠프마켓에서 드럼을 치며 음악적 역량을 키운다. 배호 음악의 모태는 인천이었던 것이다. 연안부두에 배호의 흉상과 노래비가 있는 까닭이다. 오는 11월 7일은 배호가 작고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대에 요절했지만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배호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 가을이다.



사진 남동규정

장수동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850년 동안,
나무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는
그렇게
계절마다 다른 그림이 되고
비와 바람, 눈을 피해 설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를
우린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어쩌면 장수동 은행나무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겠지만.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